최종 번역 결과

최종 완성본 (전문가용)

길가메시 서사시의 고대 바빌로니아 판본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전자책)

이 전자책은 미국 및 전 세계 대부분 지역의 모든 이들이 아무런 비용이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본 전자책에 포함되거나 www.gutenberg.org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복사, 배포 또는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 전자책을 사용하기 전에 거주 국가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목: 길가메시 서사시의 고대 바빌로니아 판본

저자: 앨버트 토비어스 클레이, 모리스 재스트로

공개일: 2006년 7월 4일 [전자책 #11000]

언어: 영어

***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전자책 '길가메시 서사시의 고대 바빌로니아 판본' 시작 ***

이 전자책은 예룬 헬링만이 제작했습니다.

예일 동양학 시리즈

연구

제4권

제3부

메리 스티븐스 해먼드를 기리며 대학에 기증된 기금으로 출판

예일 동양학 시리즈. 연구, 제4권, 3.

최근 발견된 텍스트에 기반한

길가메시 서사시의 고대 바빌로니아 판본

저자

모리스 재스트로 주니어 (Ph.D., LL.D.)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셈어학 교수

그리고

앨버트 T. 클레이 (Ph.D., LL.D., Litt.D.) 예일 대학교 아시리아학 및 바빌로니아 문학 교수

저작권, 1920, 예일 대학교 출판부

윌리엄 맥스 뮐러를 기리며 (1863-1919) 이집트학 연구에 평생을 헌신하고 수많은 공헌으로 학계를 크게 풍요롭게 한 그를 기리며

서문

서론, 두 점토판에 대한 주석, 그리고 부록은 재스트로 교수가 집필했으며, 그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예일 점토판의 텍스트는 클레이 교수가 작성했습니다. 두 점토판의 음역과 번역은 두 저자의 공동 작업물입니다. 두 점토판의 음역에는 C. E. 카이저의 "수메르-아카드어 부호의 양음 체계" (예일 동양학 연구—제9권, 부록, 뉴헤이븐, 1919)를 따랐습니다.

서론

I.

길가메시 서사시는 메소포타미아의 유적지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바빌로니아의 가장 뛰어난 문학 작품이다. 이 서사시는 한 사랑받는 영웅의 영웅적 행적과 모험을 서술하며, 최종 판본은 총 12개의 점토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점토판은 앞면과 뒷면에 각각 3개씩, 총 6개의 단으로 구성되며, 각 단은 약 50행으로 이루어져 전체 약 3600행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절반 남짓만이 아슈르바니팔 왕(기원전 668-626년)이 니네베의 궁전에 수집했던 방대한 쐐기 문자 점토판 컬렉션의 유물 속에서 발견되었다. 이 컬렉션은 1854년 레이어드가 쿠윤지크(모술 맞은편) 언덕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다. 대영박물관으로 옮겨진 약 3만 개의 점토판과 파편들 속에서 주로 조지 스미스가 고통스럽게 모은 서사시의 단편들은 파울 하우프트 교수에 의해 모범적인 형태로 출판되었으며, 이 판본은 오늘날까지도 서사시 연구의 핵심적인 원전으로 남아있다.

편의상, 우리는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의 단편들에서 나타나는 서사시의 형태를 '아시리아 판본'이라 부를 수 있다. 비록 이 도서관의 대부분의 문학 작품들처럼 바빌로니아 원본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오래된 원본의 후대 사본을 대표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복원된 단편들에서 아시리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은, 아시리아 판본이 현재의 형태를 바빌로니아, 아마도 우루크(에레크)에서 갖추게 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물론 11번째와 12번째 점토판에 나타나는 신학자나 학파의 가르침을 정교하게 다듬는 것과 같은 일부 후대적 특징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아시리아의 영향 아래에서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함무라비(또는 함무라위) 시대 이전, 즉 기원전 20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명확한 증거는, 함무라비가 여섯 번째 왕이었던 제1 바빌로니아 왕조에 명백히 속하는 한 텍스트(*CT*. VI, 5)의 출판으로 제시되었다. 짐메른은 이 텍스트를 길가메시 서사시 11번째 점토판에서 이야기되는 대홍수 생존자의 이름 중 하나인 아트라하시스 설화의 일부로 인식했다. 이는 암미사두카 왕 11년(기원전 1967년경)으로 연대가 표기된 대홍수 이야기의 단편이 발견됨으로써 확증되었다. 이 텍스트에서도 대홍수 영웅의 이름은 아트라하시스(8단, 4행)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두 점토판은 길가메시 서사시에 속하지 않으며, 단지 서사시에 통합된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할 뿐이다. 한편, 1902년 브루노 마이스너 박사는 필체와 내부 증거가 보여주듯 함무라비 시대에 속하는 한 점토판을 출판했는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구별을 위해 '고대 바빌로니아 판본'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의 일부이다. 마이스너 박사는 바그다드의 한 상점에서 이 점토판을 발견하여 베를린 박물관을 위해 구입했다. 점토판은 4개의 단(앞면 2개, 뒷면 2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료 엔키두가 죽은 후 걸린 병의 치료법을 찾아 방황하는 영웅의 이야기를 다룬다. 영웅은 병이 치명적일 것을 두려워하며 죽음을 피하고자 갈망한다. 이는 아시리아 판본의 제10 점토판 일부에 해당한다. 불행히도, 앞면의 하단부와 뒷면의 상단부(총 57행)만이 보존되어 있으며, 판권기가 없어 이 고대 바빌로니아 판본에서 이 점토판이 몇 번째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 이 점토판의 주된 가치는 서사시가 기원전 2000년경에 이미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것 외에도, (a) 영웅의 이름이 아시리아 판본의 '기쉬긴마쉬' 대신 '기쉬'로 표기되었다는 점, (b) 아시리아 판본의 '엔키두' 대신 '엔키는 선하다'는 의미의 '둑'(dug)에서 축약된 '엔키두'로 표기되었다는 점, 그리고 (c) 길가메시가 방랑 중에 만나는, 바닷가에 사는 처녀 사비툼의 주목할 만한 연설에 있다. 아시리아 판본을 통해 우리는 영웅이 잃어버린 동료에 대한 슬픔과 엔키두의 비참한 운명을 피하고픈 갈망을 처녀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안다. 고대 바빌로니아 단편에서는 사비툼의 대답이 온전히 주어지는데, 그 안에 담긴 슬픈 어조는 모든 인류에게 예견된 죽음을 피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희망 없는지를 보여주며, 이는 사비툼이 전하는 '먹고, 마시고, 즐겨라'는 철학만큼이나 놀랍다. 이 연설은 고대의 설화에 당대의 종교적 가르침을 결부시키려는 경향이 얼마나 일찍부터 나타났는지를 보여준다.

> "오, 기쉬여, 어찌하여 헤매는가? 그대가 찾는 생명, 결코 찾지 못하리라. 신들이 인류를 창조했을 때, 인류에게는 죽음을 운명 지었고, 생명은 자신들의 손에 남겨두었노라. 그대, 오, 기쉬여, 배를 채우고, 밤낮으로 즐거워하며, 매일

> 잔치를 벌여라! 밤낮으로 흥겨움을 새롭게 하라! 옷을 깨끗이 하고, 머리를 감고 몸에 물을 부어라! 그대의 손을 잡는 어린아이를 돌보고, 아내가 그대의 품에서 기뻐하게 하라!"

성서의 전도서에 담긴 핵심 사상을 떠올리게 하는 이러한 가르침들은, 본래 대중적 기원을 가졌으나 바빌로니아 신전과 연계된 학교들의 영향을 받아 수정되고 정교화된 고대 설화에 부여된 *교훈적* 성격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야기 자체는 이 고대 바빌로니아 판본의 형태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속한다. 이처럼 이른 시기에 이러한 경향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놀라움으로 다가오며, 아시리아 판본의 대홍수 이야기에 교훈이 덧붙여진 것, 즉 불멸의 성취는 신들에 의해 예외적으로 선택된 자들에게만 제한된다는 가르침 역시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추정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이는 12번째 점토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점토판은 거의 전적으로 교훈적인 내용으로, 이 세상을 떠난 자들의 운명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불가능성을 예증하기 위해 의도되었다. 또한 이는 망자를 위해 매장과 음식 및 음료 제물을 제공하며 돌보는 것이 그들에게 휴식과 굶주림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위안에 만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11번째 점토판의 끝에서 길가메시가 우루크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그의 모험에 대한 보충물처럼 보이는 12번째 점토판이, 사랑받는 영웅의 업적에 종교적 가르침을 연결하려는 경향이 _후대_에 정교화된 결과물일 가능성도 물론 있다.

II.

이제 우리는 길가메시 서사시의 문학적 형태가 지닌 극도의 고대성과, 서사시를 삶의 다양한 측면과 인류의 운명을 설명하는 매개체로 삼으려는 경향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아르노 포에벨 박사가 발견한, 이슈타르가 저승으로 내려갔다가 풀려나는 이야기의 수메르 판본은—계절이 여름에서 겨울로, 다시 봄으로 바뀌는 것을 설명하는 자연 신화로 보임—우리가 유프라테스 계곡에서 유행하던 아카드(셈족) 형태의 설화를 넘어 수메르 형태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더 나아가, 우리는 랭던 박사가 니푸르 컬렉션에서 길가메시의 모험을 다루는 두 개의 수메르 단편을 확인한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 하나는 콘스탄티노플에, 다른 하나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박물관 컬렉션에 있다. 전자는 25행(앞면 19행, 뒷면 6행)만이 보존되어 있지만, 길가메시가 산속 삼나무 숲의 지배자인 훔바바 또는 후와와와 맞서기 위해 무장하는 무기에 대한 묘사로 보인다. 후자는 우루크 시에서 길가메시가 수행한 건축 사업에 대해 다룬다. 짐메른의 *Sumerische Kultlieder aus altbabylonischer Zeit* (라이프치히, 1913) 196번 텍스트 역시 아시리아 판본의 6, 7번째 점토판에서 다루는 길가메시와 엔키두의 여신 이슈타르와의 관계에 대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의 수메르 판본 단편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많은 단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수메르 판본과 아카드 판본을 비교하는 것은 섣부른 일일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슈타르의 저승 강림에 대한 수메르 판본과 창조 신화

및 대홍수 설화의 수메르 판본이 존재하는 것처럼, 아카드 판본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되는 수메르어 서사시의 문학적 형태가 존재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아카드 판본이 수메르어의 번역본임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아카드 창조 신화가 수메르 원본의 번역본임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실제로 창조 신화의 경우, 창조에 대한 수메르와 아카드의 관점 사이의 현저한 차이는, 비록 부분적으로는 수메르 문학의 영향을 받았을지라도, 유프라테스 계곡의 셈족 정착민들이 독자적으로 창조 이야기를 만들어냈음을 시사한다. 대홍수 설화 역시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은데, 신전에 소속된 바빌로니아의 _문인들_에 의해 재구성되고 꾸준히 정교화되면서 뚜렷한 아카드적 색채를 띠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수메르 서사에 에피소드의 중복, 또는 적어도 일부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길가메시 서사시의 셈족 판본은 독자적인 *문학적* 기원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사시의 수메르 판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것이 수메르인들이 유프라테스 계곡에 오기 전 그들의 초기 고향에서 유래했음을 반드시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남부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후, 현재 상당한 근거가 있는 바와 같이, 유프라테스 계곡의 초기 정착민이었던 셈족으로부터 그것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수메르어였던 가장 오래된 *문학적* 형태와, 서사시에 구현된 주요 인물인 길가메시와 그의 동료 엔키두를 포함한 에피소드의 _기원_을 구별해야 한다. 두 영웅이 강력한 삼나무 숲의 수호자 또는 지배자와 마주치는 주요 에피소드 중 하나가 서부 지역, 더 구체적으로는 아무루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이 드러날 것이다. 더욱이 두 주인공의 이름은 인위적인 과정을 통해 "수메르식으로 변형"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견해가 옳다면 이야기가 아카드 정착민들 사이에서 시작되어 수메르인들에게 전해졌다고 가정할 추가적인 근거를 갖게 된다.

III.

함무라비 시대에 바빌로니아에서 서사시가 취했던 형태의 두 가지 실질적인 단편이 복원됨으로써, 서사시의 가장 오래된 바빌로니아 판본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판본에 대해서도 새로운 빛이 비춰졌다. 이 중요한 신규 자료에 대한 연구는 또한 서사시에 대한 해석을 진전시키고 그 구성 요소에 대한 분석을 완성할 수 있게 해준다. 1914년 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박물관은 구매를 통해 하나의 큰 점토판을 입수했는데, 그 필체와 문체, 그리고 동사형과 명사형의 철자법은 명백히 제1 바빌로니아 왕조 시대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점토판은 아르노 포에벨 박사에 의해 길가메시 서사시의 일부로 확인되었으며, 판권기가 보여주듯이 시리즈의 두 번째 점토판이었다. 그는 출판을 위해 이를 복사했으나, 모국인 독일에서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니푸르 컬렉션의 점토판들 속에서 발견된, 부분적으로 신화적이고 부분적으로 역사적인 왕조들의 중요한 목록에서 드러난 길가메시에 대한 역사적 또는 반(半)역사적 전통에 관한 논의에서 그 내용 일부를 활용했다. 이 목록에서 길가메시는 쿨랍의 사제였던 아(Â)를 아버지로 둔 우루크 왕조의 왕으로 등장한다.

그 후 이 점토판의 출판은 스티븐 랭던 박사가 "길가미쉬 서사시(The Epic of Gilgamish)"라는 제목의 단행본 형태로 착수했다. *박물관 저널*(Museum Journal) 제8권 29-38쪽에 실린 예비 논문에서 랭던 박사는 이 점토판을 후기 페르시아 시대(기원전 6세기에서 3세기 사이)의 것으로 보았으나, 약 _1500년_의 연대 착오에 대한 지적을 받고 나서 자신의 텍스트 판본 서문에서 이를 수정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텍스트를 "후기"라고 언급하는 일부 주석은 변경하지 않고 남겨두었다. 랭던 박사는 텍스트 사본과 함께 양질의 사진, 음역 및 번역, 그리고 약간의 주석과 간략한 서론을 제공했다. 불행히도 텍스트는 오류가 많아 잘못 복사되었으며, 번역 또한 매우 미흡하다. 에드워드 키에라 박사의 도움을 받아 원본 점토판과의 세심한 대조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우리는 학자들에게 정확한 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 점토판을 열람할 수 있도록 친절히 허락해 주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박물관장 고든 박사님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텍스트를 재출판하는 대신, 나는 이 책의 부록에 수정 사항 전체 목록을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이는 학자들이 우리의 판독을 검토할 수 있게 하고, 랭던 박사의 번역과 다른 수많은 구절에서 우리의 번역이 정당함을 입증할 것이라 믿는다. 이 중요한 점토판을 접할 수 있게 한 랭던 박사의 공로를 인정해야 하지만, 과학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가 잘못된 판독과 결함 있는 번역으로 인해 놓쳐버린, 점토판이 제공하는 수많은 중요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점토판은 앞면 3단, 뒷면 3단, 총 6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권기에 따르면 240행을 포함하고 있었고 시리즈의 두 번째 점토판이었다. 전체 중 204행이 완전하거나 부분적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소실된 36행 중 상당수는 복원이 가능하여 상당히 완전한 점토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파손은 뒷면 상단에서 발생했는데, 약 8행이 소실되었다. 이로 인해 앞면 끝(약 5행 소실)과 뒷면 시작 사이의 연결이 불분명해졌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놓칠 정도는 아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박물관이 이 길가메시 시리즈의 두 번째 점토판을 구입할 무렵, 예일 대학교도 같은 거래상으로부터 한 점토판을 입수했는데, 이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점토판의 후속 부분으로 밝혀졌다. 두 점토판이 동일한 판본에 속한다는 것은 점토의 짙은 갈색, 필체, 그리고 점토판의 크기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증명된다. 다만 예일 점토판의 문자는 다소 빽빽하여 판독이 더 어렵다. 두 점토판 모두 앞면 3단, 뒷면 3단, 총 6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점토판의 크기는 거의 동일하여, 펜실베이니아 점토판의 높이는 약 7인치, 예일 점토판은 7과 2/16인치로 추정되며, 너비는 둘 다 6과 1/2인치이다. 그러나 예일 점토판은 더 촘촘하게 기록되어 있어 펜실베이니아 점토판보다 행 수가 더 많다. 예일 점토판의 판권기는 안타깝게도 소실되었지만, 내부 증거를 통해 예일 점토판이 펜실베이니아 점토판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이 시리즈의 세 번째 점토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앞면은 매우 심하게 손상되어 내용의 개요만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이다. 뒷면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에는 심각한 결손 부분이 있다. 필사가는 분명히 앞에 놓인 사본을 정확히 따르려 했으나, 6단 안에 사본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음을 깨닫고 마지

막 단을 가장자리에 이어 썼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4단 45행, 5단 47행에 비해 여섯 번째 단에서 64행을 얻게 되며, 6개 단 전체로는 총 292행이 된다. 가장자리에 쓰인 16행을 제외하면, 우리 점토판은 276행으로, 동반 점토판의 240행과 비교된다. 각 단의 너비가 두 점토판에서 동일하므로, 36행의 차이는 더 빽빽한 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두 점토판 모두 측면에 독특한 돌기가 있는데, 그 목적은 랭던이 추정한 것처럼 글을 쓰거나 읽는 동안 손에 잡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이 목적에는 전혀 실용적이지 않다), 선반 위에 책을 배열하듯 자연스럽게 가장자리로 세워 놓았을 때 점토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고대 바빌로니아 판본의 두 점토판은 위에서 설명한 마이스너 점토판과 동일한 판본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후자는 앞뒷면에 각각 2단씩으로 구성된 반면, 우리 두 점토판은 각각 3단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는 기원전 2000년경에 이미 서사시의 여러 판본이 존재했다는 흥미로운 증거를 갖게 된다. 우리 두 점토판의 출처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가 없으나, 1913년경 많은 점토판이 거래상들의 손에 들어갔던 와르카의 언덕에서 원주민들이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 시리즈의 두 점토판이 발견된 곳에서는 시리즈의 다른 점토판들도 발굴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이 고대 바빌로니아 판본의 다른 부분들이 다른 거래상들의 손이나 박물관에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IV.

두 점토판의 내용을 살펴보면, 펜실베이니아 점토판은 두 영웅 길가메시와 엔키두의 만남과 갈등, 그리고 이어지는 화해를 다룬다. 반면 예일 점토판은 그 후속 이야기로, 두 영웅이 삼나무 숲의 수호자인 훔바바—아마도 후바바로 발음되었을 것이며, 고대 바빌로니아 판본에서는 후와와로 나타남—와의 대결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따라서 두 점토판은 아시리아 판본의 제1-5 점토판 일부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병행 구절의 수는 많지 않으며, 아시리아 판본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고대 바빌로니아 판본에 대해 더 큰 독립성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아시리아 판본이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는데, 이는 그것이 고대 바빌로니아 판본보다 상당히 후대에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미 바빌로니아 판본에서 바빌로니아-아시리아 설화 전반의 특징인 반복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두 바빌로니아 점토판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다루는 두 가지 에피소드, 즉 (1) 길가메시와 엔키두의 만남, (2) 후와와와의 대결에 대한 특정 세부 사항을 보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토판들의 가장 큰 가치는,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의 단편들로 대표되는 텍스트에서 서사시가 최종적인 형태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성장해온 과정에 빛을 비춰준다는 점에 있다.
이제 먼저 펜실베이니아 점토판, 그 다음으로 예일 점토판의 상세한 분석을 시작해보자.
펜실베이니아 점토판은 길가메시가 어머니에게 이야기한 두 개의 꿈으로 시작되며, 어머니는 이를 엔키두가 우루크에 올 것이라는 예언으로 해석한다. 첫 번째 꿈에서는 무거운 운석 같은 것이 하늘에서 길가메시 위로 떨어져 그를 거의 짓뭉갠다. 우루크의 영웅들의

도움으로 길가메시는 이 무거운 짐을 어머니 닌순에게 가져간다. 어머니는 이 짐이 길가메시처럼 산에서 태어난 어떤 인물을 상징하며, 모두가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길가메시는 그에게 여자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강한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두 번째 꿈에서 길가메시는 자신과 닮았고 도끼를 휘두르는 어떤 인물을 보고 그와 사랑에 빠진다. 어머니는 이 인물이 다시 엔키두라고 설명한다.

랭던은 이 꿈들이 엔키두가 6일 밤낮으로 동거하며 동물과의 교제를 끊게 한 여인에게 이야기되었다고 보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 엔키두와 여인의 장면은 아시리아 판본에서처럼 첫 번째 점토판에서 상세히 서술되었어야 한다. 반면 여기 두 번째 점토판에서는 길가메시가 자신의 꿈을 어머니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이어진다. 그 후 이야기는 여인에 의해 우루크 외곽으로 인도된 엔키두가 음식을 받는 장면으로 계속된다. 이 사건의 주요 특징은 엔키두가 문명 생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전까지 벌거벗고 다녔던 엔키두는 여인이 입혀준 옷을 입는다. 동물처럼 젖을 빨고 구유에서 물을 마시는 대신, 음식과 독한 술이 그의 앞에 놓이고, 그는 인간다운 방식으로 먹고 마시는 법을 배운다. 그는 또한 인간처럼 술에 취하며, 그의 "흥청망청한 모습"은 순진하게 묘사된다: "그의 마음은 기뻐졌고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 동물처럼 이전까지 털로 뒤덮여 있던 엔키두의 몸은 이제 털이 밀리고, 그는 기름을 바르고 "사람처럼" 옷을 입는다. 엔키두는 목자가 되어 야생 동물로부터 양 떼를 보호하며, 사자를 물리치는 그의 활약이 간략하게 이야기된다. 이 지점에서—앞면 제3단의 끝, 즉 117행, 그리고 뒷면 제4단의 시작, 즉 131행—13행의 공백이 있으며, 점토판의 내용은 불분명해진다. 그러나 엔키두가 야만에서 문명 생활로 점차 변모하는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이며, 그에게 정해진 아내와 함께 하는 가정생활과 그의 운명의 일부로서의 노동에 대한 적응이 강조된다. 이 모든 것은 길가메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엔키두의 이야기는 원래 인간의 삶과 운명의 진화를 설명하기 위한 *독립적인* 이야기였음이 분명하다. 즉, 한 여인과의 교제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고, 문명의 방식에 익숙해지며, 목축 단계를 거쳐 더 높은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고, 가족이 형성되며, 인간 활동과 관련된 노동에 종사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길가메시 이야기와 연결하기 위해 두 영웅이 함께 등장하게 되며, 여인은 문명화시키는 역할에 더하여 엔키두를 길가메시에게 데려가는 매개체의 역할을 맡는다. 여인은 우루크 외곽에서 엔키두를 이끌고 도시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그를 보고 길가메시와 닮았다고 말한다. 그는 키가 약간 작을 뿐, 길가메시의 완벽한 맞수이다. 그 후 우루크의 거리에서 두 영웅의 대결이 벌어지고, 그들은 격렬한 싸움을 벌인다. 길가메시는 엔키두에게 제압당하고 땅에 내동댕이쳐지자 분노한다. 점토판은 엔키두가 길가메시를 달래려는 노력으로 끝을 맺는다. 엔키두는 길가메시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평범한 인간 이상으로 높였으며, 엔릴 신 자신이 그를 왕의 특권을 위해 선택했다고 선언한다.

이후, 두 영웅은 친구가 되어 함께 여러 가지 위업을 수행하는데, 그 첫 번째가 삼나무 숲의 강력한 수호자에 대한 공격이다. 이것이 예일 점토판의 주요 에피소드로, 고대 바빌로

니아 판본의 세 번째 점토판을 형성한다.

예일 점토판 앞면의 첫 번째 단은 보존 상태가 좋지 않지만, 우루크의 장로들(혹은 백성들)이 길가메시에게 후와와의 거처로 침투하려는 시도를 단념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첫 번째 단의 끝부분은 이 장로들과 엔키두를 동행하는 여인 사이의 대화를 나타낼 수 있다. 아마도 장로들이 후와와와 싸우려는 길가메시의 결심을 "여인에게 보고하는" 장면일 것이다. 장로들은 이 위험한 모험에 엔키두가 길가메시와 동행하기를 바라는 듯하며, 이를 위해 여인에게 호소한다. 두 번째 단에서는 길가메시의 어머니에 대한 모호한 언급—아마도 태양신에게 기도하는 내용—이후에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다시 마주하는 장면이 나온다. 엔키두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찼다"는 언급에서, 우리는 그가 길가메시가 자신의 계획을 고집할 경우 닥칠 일들을 생각하며 연민을 느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엔키두 역시 길가메시를 말리려 한다. 이것이 두 번째 단 중반부터 세 번째 단 끝까지 이어지는 두 사람의 대화의 주된 내용으로 보인다. 엔키두는 자신의 힘조차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 “내 팔은 무력하고, 내 힘은 약해졌노라.” (88-89행)

길가메시는 엔키두에게 그토록 두려움을 주는 무시무시한 폭군에 대해 묘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듯하며, 이에 엔키두는 한때 가축들과 함께 떠돌다가 숲속으로 들어갔을 때 들었던, 홍수와도 같은 후와와의 포효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폭군의 입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왔고, 그의 숨결은 죽음 그 자체였다. 하우프트 교수가 제안했듯이, 엔키두가 묘사하는 것은 강력한 포효와 함께 불을 뿜고 질식할 듯한 연기를 내뿜는 화산 폭발의 모습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길가메시는 굴하지 않고 엔키두에게 모험에 동행할 것을 촉구한다.

길가메시는 말한다, "나는 숲으로 내려가리라." (만약 해당 행(126행)에 대한 추측적 복원이 옳다면). 엔키두는 다시금 "우리가 (함께) 숲으로 갈 때..." 일어날 끔찍한 일들을 생생하게 그리며 대답한다. 엔키두의 이 연설은 뒷면에서 계속된다. 이에 길가메시는 샤마쉬 신의 호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강조하며 엔키두를 비겁하다고 꾸짖는다. 그는 엔키두의 경고를 무시하며, 후와와를 이기려는 시도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대담하게 선언한다.

> “공포가 도사리는 곳마다, 그대는 진실로 죽음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대의 용맹에는 힘이 부족하다. 내가 그대 앞에 서리라. 비록 그대의 입이 나에게 ‘접근하기를 두려워하는구나’라고 외칠지라도, 내가 쓰러진다면, 나의 이름을 세우리라.” (143-148행)

이어지는 것은 대결을 준비하기 위해 두 영웅의 무기를 만드는 흥미로운 묘사이다. 우루크의 장로들은 이 준비 과정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인다. 그들은 길가메시가 감히 삼나무

숲에 들어온다면 그를 전멸시키겠다는 후와와의 위협을 듣고, 다시 한번 길가메시에게 그 계획을 단념시키려 한다.

> "오, 기쉬여, 그대는 젊고 마음이 앞서는구나. 그대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190-191행)

그들은 무시무시한 후와와에 대한 묘사를 반복하며 길가메시를 겁주려 한다. 길가메시는 여전히 굴하지 않고 그의 수호신 샤마쉬에게 기도하고, 샤마쉬는 그에게 호의적인 "신탁"(*테르투*)을 내려주는 듯하다. 두 영웅은 전투를 위해 무장하고, 이제 이 위험한 계획에 동의하게 된 우루크의 장로들은 길가메시에게 여정을 위한 식량을 챙기라고 조언한다. 그들은 엔키두가 앞장서도록 길가메시를 재촉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그는 길을 잘 알고, 숲의 입구로 가는 길을 이미 다녀본 자이니라." (252-253행)

장로들은 엔키두가 길가메시를 위해 "닫힌 길"을 찾아내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를 떠나보내고, 루갈반다—여기서는 아마도 샤마쉬의 다른 이름—의 보살핌에 그를 맡긴다. 그들은 길가메시에게 특정 의식을 행하라고 조언하는데, 후와와의 강에서 발을 씻고 샤마쉬에게 물의 제주를 바치는 것이다. 엔키두 또한 영웅을 격려하기 위한 연설을 이어가며, 후와와에 대한 원정의 실제적인 시작과 함께 점토판은 끝이 난다. 두 영웅의 승리를 포함한 대결 자체는 네 번째 점토판에서 묘사되었을 것이다.

V.

이제 이 두 점토판을 통해 우리가 서사시에 대해 알게 된 추가적인 정보들의 중요성을 논하기 전에, 우리 점토판에 나타나는 두 영웅과 삼나무 숲 지배자의 이름의 형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마이스너 단편에서와 같이, 펜실베이니아와 예일 점토판 모두에서 주인공은 변함없이 'dGish'로 지칭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아시리아 판본의 'dGish-gì(n)-mash' 표기에 비해 함무라비 시대에 일반적인 형태였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마이스너 단편에서와 같이, 두 번째 영웅의 이름은 항상 아시리아 판본의 'En-ki-dú'와 달리 'En-ki-du'('dúg'에서 축약됨)로 표기된다. 마지막으로, 예일 점토판에서는 처음으로 삼나무 숲의 수호자 이름이 'Hu-wa-wa'로 표기된 것을 발견하는데, 이는 아시리아 판본의 'Hum-ba-ba'와 대조된다. 다만 후자의 경우, 예일 점토판을 통해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이 'Hu-ba-ba'로 읽혀야 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후자의 이름 표기 변화는 두 경우 모두 순음(labial)이 유기음(aspirate)으로 발음되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 이름은 민수기 10장 29절의 P문서에 모세의 장인으로 등장하는 히브리 이름 '호와와'(Howawa) 또는 '호밥'(Hobab)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유사성을 보여준다. 이 이름이 예일 점토판과 정

확히 동일하게, 키에라 박사가 출판한 중요한 "아모리식" 이름 목록에도 나타나므로, 후와와 또는 후바바가 서부 셈족의 이름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중요한 사실은 후와와가 거주하는 "삼나무 숲"이 고대부터 삼나무로 유명했던 레바논 지역 외에 다른 곳이 아니라는 가능성을 더해준다. 후와와라는 이름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이전에 제기되었던 엘람 기원설을 폐기시킨다. 그레스만은 삼나무 숲에 대한 묘사가 아마누스나 레바논 산맥을 가리킨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여전히 엘람 기원설을 선호한다. 이 이름의 서부 셈족 기원을 더욱 확증하는 것으로, 루키아노스의 *시리아 여신에 관하여*(De Dea Syria) 19절에 스트라토니카의 수호자인 'コ바보스'(Kombabos)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는 후(ロ)바바와 완벽한 유사성을 형성한다. 후와와라는 이름이 지닌 이러한 서부적 성격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해석과 기원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즉 폭군과 두 영웅의 대결 에피소드가 서부 또는 아무루 땅에 대한 원정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다.

엔키두라는 이름의 표기 변화 또한 흥미롭다. 고대 바빌로니아 판본의 형태인 '두'(du, 즉 '둑'(dúg)) 기호를 사용한 것이 원형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에게 "엔키는 선하다"라는 적절한 어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둑'(dúg)으로 쓰고 '두'(du)로 발음하는 표기는 또한, 아시리아 판본에서 이름의 세 번째 요소인 '두'(dú) 기호가 '두'(dú)로 읽혀야 하며, '에아바니'(Ea-bani)와 같은 이전의 판독들은 명확히 폐기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두'(dú)를 사용한 형태는 수메르 이름의 *음성적* 표기임이 분명하며, '두'(dú) 기호는 세 번째 요소인 '둑'(dúg)의 표의문자가 아닌 _발음_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된 것이다. 이는 음절표 *CT* XVIII, 30, 10에서 '엔기두'(En-gi-dú)로 표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음성적 표기는 아카드어 음역으로 이름을 읽으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는 엔키두가 수메르 _기원_임을 증명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엔키두'(En-ki-dú)라는 표기가 _외래어_일 수 있는 이름에 수메르적 _외양_을 부여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둑'(dúg) 요소는 셈어의 '타부'(tâbu), 즉 '좋다'에 해당하며, '엔키'(En-ki)는 본래 '땅의 주님'이라는 신의 칭호로서, 셈어의 '바알'(Baal)을 수메르식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엔키둑'(En-ki-dúg)이 셈어의 '바알 좁'(BA`L TZOB), 즉 '바알은 선하시다'의 '수메르화된' 형태일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예일 점토판 제3단에서 엔키두가 아직 소와 함께 살던 초기 시절, 후와와의 삼나무 숲을 헤맸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과, 다른 구절(252-253행)에서 그가 "길을 잘 알고... 숲의 입구로 가는 길을" 안다고 묘사되는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엔키두의 본래 고향이 서쪽임을 명확히 시사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아무루—서쪽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가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길가메시가 레바논 지역의 후와와에 대항하는 원정이 바빌로니아의 아무루 원정을 상기시킨다면, 아시리아 판본에서 반복적으로 읽히는 바와 같이

> "가젤과 함께 풀을 뜯고, 가축과 함께 구유에서 물을 마셨던"

엔키두가 그의 고향에서 온 것은, 바빌로니아에 대한 아모리인의 침략 전통에 기반을 둘 수 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의 싸움은 이 전통과 잘 맞아떨어지며, 그 후의 화해는 침략자들과 기존 정착민들 사이의 강제적인 통합을 전통이 표현하는 형태일 것이다.

이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고대 바빌로니아 판본에서 서사시의 주인공을 가리키는 'dGish'라는 형태와 아시리아 판본의 'dGish-gi(n)-mash'와의 관계를 고찰해 보자. 다행히도 '기쉬'(Gish)의 의미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분명히 아카드어 '지카루'(zikaru, '남자', 브뤼노 번호 5707) 또는 아마도 '라부'(rabû, '위대한', 브뤼노 번호 5704)와 동등하다. 다양한 등가어 중에서 '이틀루'(itlu, '영웅')가 가장 선호된다. 신을 나타내는 한정사는 그렇게 지칭된 인물이 신격화되었거나 부분적으로 신성함을 나타내며, 이는 길가메시 서사시의 아시리아 판본에서 영웅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 명시적인 진술과 일치한다.

"삼분의 이는 신이고 삼분의 일은 인간이다."

따라서 기쉬는 '탁월한 영웅신'(hero-god par excellence)이며, 이는 우리가 진정한 고유명사가 아니라 묘사적인 속성을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메르어나 아카드어에서 고유명사는 이런 방식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이제 이 '기쉬'라는 형태가

[FIGURE]

아시리아 판본에서 영웅의 이름이 변함없이 쓰이는 방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자. 이 형태는 학자들에 의해 처음에는 'dIz-tu-bar' 또는 'dGish-du-bar'로 읽혔으나, 핀치스가 신바빌로니아 시대의 음절표에서 그것이 '기-일-가-메쉬'(Gi-il-ga-mesh)와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핀치스의 발견은 영웅의 이름이 대중적으로 '길가메시'로 발음되었음을 결정적으로 시사했다. 그리고 아일리아누스(*동물의 본성에 관하여* XII, 2)가 바빌로니아 인물 '길가모스'(Gilgamos)를 언급하므로(비록 그가 길가모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은 우리 서사시에 나타나지 않고 다른 바빌로니아 신화의 인물인 에타나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의심할 이유는 더 이상 없는 듯했다. 게다가, 테오도르 바르 코니의 주해서에서 발견된 후대의 시리아어 바빌로니아 왕 목록에 'GLMGVM'이라는 이름과 변이형 'GMYGMVS'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핀치스가 발견한 '기-일-가-메쉬'를 발견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로써 왕이기도 했던 고대 바빌로니아 영웅 길가메시의 존재와 그가

[FIGURE]

와 동일 인물임이 확립된다. 우리는 이 이름을 'Iz-tu-bar'나 'Gish-du-bar'로 읽을 수 없으며, 첫 번째 기호를 'Gish'로, 세 번째를 'Mash'로 읽어야 하고, 두 번째 기호에 대해서는 'Gìn' 또는 'Gi'라는 독음을 가정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는 우리에게 'Gish-gì(n)-

mash'를 주는데, 이는 다시 (엔키두처럼) 어원적 표기가 아니라 대중적인 발음에 _접근_ 하려는 의도를 가진 *음성적* 표기이다. 'Gi-il-ga-mesh'는 'Gish-ga-mesh'의 변이형일 수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는 'Gish-gi-mash'에 가까워진다. 이제, 발음이 명확하지 않고 근사치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되는 이름을 가질 때, 그 이름이 외래어일 확률이 높다. 외래어 이름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될 수 있다. 아시리아 판본의 서사시는 명백히 'dGish-gì(n)-mash'를 우루크의 정복자로 묘사하는데, 그는 백성을 복속시키고 그의 독재적인 통치는 우루크 백성으로 하여금 여신 아루루에게 그에게 맞설 수 있는 경쟁자를 창조해달라고 간청하게 만든다. 이 호소에 응답하여 'dEnkidu'가 아루루에 의해 흙으로 빚어져 결국 우루크로 오게 된다. 따라서 'Gish-gì(n)-mash' 또는 길가메시는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 고대 바빌로니아 판본의 '기쉬'와 (2) 아시리아 판본의 '기쉬-긴-마쉬'라는 두 형태의 존재에 의해 제안되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전자를 축약형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짧은 이름이 '탁월한 영웅'이라는 개념을 전달했기 때문에 적절해 보였을 것이다. 만약 '기쉬-긴-마쉬'가 외래어 이름이라면, 첫 번째로 수메르어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 우루크의 정복자이자 통치자가 서사시 밖에서는 'dGish-bil-ga-mesh'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며, 'dGish-gibil(또는 bìl)-ga-mesh'와 'dGish-bil-ge-mesh'가 변이형으로 나타난다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포에벨이 출판한, 부분적으로 신화적이고 부분적으로 역사적인 왕조들의 주목할 만한 목록에서, 우루크 제1왕조의 다섯 번째 구성원은 'dGish-bil-ga-mesh'로 나타난다. 그리고 유사하게 신-가밀 시대의 한 비문에서는 'dGish-bil-ga-mesh'가 우루크 성벽의 건축자로 언급된다. 더욱이, 서사시의 수메르 판본의 여러 단편들에서는 변함없이 'dGish-bil-ga-mesh' 형태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것이 수메르어에서 이름의 진정한 형태이며, 따라서 아마도 가장 오래된 형태임이 분명하다. 추가적인 확인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음절표, CT, XVIII, 30, 6-8에는 우리 영웅에 대한 세 가지 지칭이 있다. 즉,

dGish-gibil(또는 bíl)-ga-mesh *muk-tab-lu* ("전사") *a-lik pa-na* ("지도자")

이 세 가지 지칭은 모두 수메르어 '에시가 이민'(Esigga imin), 즉 "일곱 겹의 영웅"과 동등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같은 일반적인 성격의 것으로 다른 음절표의 등식이 있다.

에시가툭(Esigga-tuk)과 그 등가물인 기쉬툭(Gish-tuk) = "영웅인 자"

더욱이, 우르 왕조 시대의 "신전" 문서들에서 이 이름은 'dGish-bil-ga-mesh' 형태로 자주 나타나며, 'dGish-bil-gi(n)-mesh'가 변이형으로 쓰인다. 신들의 목록(*CT* XXV, 28, K 7659)에서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dGish-gibil(또는 bíl)-ga-mesh'를 마주치게 되며, 마지막으로 한 음절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등식을 볼 수 있다.

dGish-gi-mas-[si?] = dGish-bil-[ga-mesh].

'기쉬-빌'(Gish-bil)에 대한 변이형 '기쉬-기빌'(Gish-gibil)은, '빌'(Bil, 브뤼노 번호 4566)과 '기빌' 또는 '빌'(Bíl, 브뤼노 번호 4642) 두 기호의 빈번한 혼동이나 교체를 고려할 때 쉽게 처리할 수 있다. 후자는 또한 '기'(Gi, 브뤼노 4641) 값을 가지므로, '기쉬-기-가-메쉬'(Gish-gi-ga-mesh)로도 읽을 수 있다. 두 기호 모두 "불", "새롭게 하다" 등의 개념을 전달하며, 둘 다 불꽃 그림에서 유래했다. 하나는 그 위에 그릇(또는 그와 유사한 물체)이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횃불에서 나오는 불꽃으로 보인다. 이름을 'dGish-bil-ga-mesh'로 읽든 'dGish-gibil(또는 bíl)-ga-mesh'로 읽든 의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 중간 요소는 불의 신과 동일하며, dBil-gi로 쓰이고 역순으로 Gibil로 발음되며, -ga(또는 -ge)가 음성적 보충음이므로, 전자의 bil-ga 표기와 동등하기 때문이다. 이제 '기쉬-기빌' 또는 '기쉬-빌'은 '아부'(abu, "아버지", 브뤼노 번호 5713)라는 개념을 전달하며, '빌'(Bil, 브뤼노 번호 4579)이 이 의미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 '파-기빌-(가)'(Pa-gibil-(ga)) 또는 '파-빌-가'(Pa-bíl-ga)는 '아부 아비'(abu abi, "할아버지")이다. 이 의미는 '기빌'뿐만 아니라 '빌' = '이샤투'(isatu, "불"), 그리고 '에슈'(essu, "새로운"), 그리고 '아부'(abu, "아버지"), 즉 새롭게 하는 자 또는 창조자로서 파생될 수 있다. 따라서 '기쉬'와 '빌' 또는 '기빌'은 "아버지-인간" 또는 "아버지-영웅", 즉 다시 말해 '탁월한 영웅', 원초적 영웅을 의미하며, 히브리어와 아랍어에서 '아브'(ab)가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과 같다. '가' 음절은 음성적 보충음이므로, '메쉬' 요소는 그 자체로 취해져야 하며, 포에벨이 제안했듯이 "영웅"(*이틀루*. 브뤼노 번호 5967)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인간(또는 영웅), 아버지, 영웅"이라는 전적으로 인위적인 조합을 얻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우르-헬트'(Ur-held), 즉 원초적 영웅, 말하자면 영웅들의 아버지라는 개념을 강조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기쉬' 혼자서 전달하는 개념, 즉 '탁월한 영웅'과 동일한 개념이다. 우리의 조사는 따라서 우리를 '기쉬'와 더 긴 형태인 '기쉬-빌(또는 빌)-가-메쉬' 사이의 실질적인 동일성으로 이끌며, 전자는 후자의 축약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짧은 형태와 긴 형태 모두, 우리 영웅을 '무크타블루'(muktablu, "싸우는 자"), '알릭 파나'(âlik pâna, "이끄는 자"), '에시가 이민'(Esigga imin, "일곱 겹의 영웅"), 또는 '에시가 툭'(Esigga tuk, "영웅인 자")으로 지칭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이름이라기보다는 순진한 민간 어원에 기반을 둔 _묘사적인 별칭_이다. 대홍수 이야기의 영웅에 대한 별칭인 '아트라-하시스'(Atra-hasis, "매우 현명한 자")도 마찬가지다. '기-일-가-메쉬'나 '기쉬-긴-마쉬'의 경우는 다른데, 이는 이름의 대중적이고 실제적인 발음, 또는 적어도 그러한 발음에 대한 _근사치_를 나타낸다. 모든 인위성이 벗겨진 그러한 형태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이름이라는 인상을 준다. 우리가 이끌어내는 결론은, '기쉬-빌(또는 빌)-가-메쉬'가 진정한 이름에 대한 언어유희로서, 외국인인 그의 진짜 이름이 아무런 의미를 제시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그의 성격에 부합하는* 해석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기쉬-빌-가-메쉬'는 유프라테스 계곡에서 민중의 자산이 된 이야기의 수메르 판본에 도입된, 이름의 "수메르화된" 형태이다. 개인의 성격이나 어떤 사건을 암시하기 위해 이름에 대한 그러한 언어유희를 하는 것은 창세기의 서술들에서 우리에게 익숙하다. 그것들은 진정한 어원을 구성하지 않으며, 정확한 어원으로 이끄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다. 예를 들어, 르우벤은 확실히 "야훼께서 나의 고통을 보셨다"는 의미가 아니며, 유다는 "내가 야훼를 찬양하리라"는 의미가 아니다(창 29:32, 35). 비록 신성한 이름(예호)을 요소로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름에 대한 언어유희는 칭찬적이거나 적절한 어원을 *암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 가깝거나 멀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길가메시와 같은 외국어 이름을 기쉬-빌-가-메쉬라는 여러 요소로 인위적으로 분할하고 동시에 왜곡하는 것은, 예를 들어 잇사갈, 또는 오히려 잇사스갈을 "하나님께서 내 삯을 주셨다"(창 30:18)고 설명하는 것보다 더 심하지 않다. 이는 '세카르'라는 요소에 대한 언어유희를 포함하며, 마치 그 이름이 '야'("하나님")와 '세카르'("삯")로 나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는 아랍인들 사이에서 알렉산더의 대중적인 이름인 '줄 카르나이니', 즉 "두 뿔의 소유자"는 그의 두 반구 정복이나 그 외의 것을 암시한다. 길가메시의 '길' 요소는 '기쉬-빌' 또는 '기-빌'의 축약으로 간주되어 "아버지-영웅"이라는 의미를 제공하거나, '길'은 '기쉬'의 변이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아시리아 판본의 "음성적" 형태인 dGish-gi-mash 뿐만 아니라 dGish-gi-mas-(si)와 같은 변이형 표기도 제공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형태에 가장 가깝다고 확실히 결정할 수 있는 길가메시와 같은 이름은 확실히 외국어, 즉 수메르어도 아카드어도 아니라는 인상을 준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서사시의 영웅이 우루크의 정복자이자 다소 무자비한 인물로 묘사된다는 사실이, 유프라테스 계곡 침략의 전통이 시리즈의 첫 번째 점토판 에피소드의 배경임을 시사한다고 제안했다. 이제 포에벨의 목록에 나타나는 "신화적" 왕조의 많은 이름들이 마찬가지로 외국어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예를 들어, 신 샤마쉬의 아들인 메스-키-인-가-세-이르(그리고 dGish-bil-ga-mesh가 다섯 번째 구성원인 "신화적" 우루크 왕조의 창시자)와 그의 아들 엔-메-이르-카르가 그렇다. 훨씬 더 이전의 "신화적" 왕조에서는 가-루-무-움, 주-가-기-입, 아르-피, 에-타-나와 같은 이름들을 마주치게 되는데, 이는 뚜렷하게 외국어이다. 반면 엔-메(ㄴ)-눈-나와 바르-살-눈-나와 같은 이름들은 다시 한번 진정한 수메르어 형성이라기보다는 "수메르화된" 이름이라는 인상을 준다.

갈루뭄, 아르피, 에타나와 같은 일부 이름들은 너무나 아모리식 외양을 하고 있어서, 그들의 서부 기원을 추측해 볼 만하다. 길가메시 역시 아무루 지역에 속할까, 아니면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서쪽에서는 바알-톱이었을 수 있는 이름의 엔키두와는 대조적으로 동쪽에서 온 외국인을 대표하는 것일까? 엔키두는 서사시에 따르면 그 지역에 매우 익숙하다. '가-메쉬'라는 두 번째 요소가 이름의 셈어 기원과 잘 맞아떨어질 것이라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요소는 메스킨-가세르의 두 번째 요소에서 그러한 형태를 볼 수 있듯이, 셈어 어간 G-M-S의 분사형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길'은 서부 셈족 신의 이름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추측들은 현재로서는 입증될 수 없으며, 우리는 영웅의 실제 이름이거나 적어도 실제 이름에 가장 가까운 형태인 길가메시가 영웅의 외국 기원을 가리키며, dGish-bil-ga-mesh와 dGish-bíl-gi-mesh 및 다른 변이형들과 같은 형태들은 "원초적 영웅" 또는 "탁월한 영웅"이라는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인위적인 어원이 제시된 "수메르화된" 형태들이라는 결론에 만족해야 한다. 서사시의 수메르 판본 편찬

자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름에 대한 이 "언어유희"를 통해, 길가메시는 수메르 인물로 전환되었으며, 엔키두라는 이름이 그의 아모리식 이름의 수메르어 번역으로 도입되었을 수 있는 것과 같다. 어쨌든 dGish는, 당연히 수메르 판본의 영향 아래에서 제작된 가장 오래된 아카드 판본의 편찬자들에 의해 도입된, "수메르화된" 이름의 축약형이다. 나중에, 서사시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dGish-gi-mash라는 음성적 표기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어느 정도 진정한 이름과 "수메르화된" 형태 사이의 타협이지만, 동시에 실제 발음에 대한 _접근_이다.

VI.

서사시의 두 주요 인물의 이름과 본래 성격에 대한 새로운 조명 다음으로, 펜실베이니아 단편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기쉬와 엔키두, 두 영웅이 서로 놀랍도록 닮았다는 증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쉬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의 어머니 닌순은 꿈이 기쉬와 같은, "들에서 태어나 산에서 자란"(18-19행) 누군가의 등장을 예고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묘사는 둘 다 바빌로니아에 산악 지역에서 온, 즉 외국인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엔키두의 경우, 우리는 산이 서쪽 지역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았으며, 기쉬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두 영웅의 유사성은 그들의 외모까지 확장된다. 엔키두가 우루크의 거리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이 유사성에 놀란다. 그들은 그가 "기쉬와 같다"고 말하지만, "키가 더 작다"(179-180행). 엔키두는 경쟁자 또는 상대로 묘사된다.

두 사람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아시리아 판본에서도 암시된다. 아루루에 의한 엔키두 창조에서, 사람들은 여신에게 길가메시의 "상대"(*지크루*)를 창조하라고 촉구하는데, 그와 닮은(*마-시-일*) 누군가이다(제1 점토판, 2단, 31행). 엔키두는 산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산은 구체적으로 그의 출생지로 지정되며(제1 점토판, 4단, 2행), 펜실베이니아 점토판에서와 정확히 같다. 반면 다른 구절에서는 우리 점토판에서처럼 "들에서 태어났다"고 묘사되기도 한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길가메시를 엔키두의 *탈리무*, 즉 "남동생"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길가메시가 엔키두에 대한 애도에서 그를 "남동생"(*쿠-타-니*)으로 묘사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다시 서사시의 마지막 점토판에서는 길가메시가 엔키두의 "형제"로 언급된다. 이 긴밀한 관계는 수메르 판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왜냐하면 콘스탄티노플 단편(랭던, 위, 13쪽)은 기쉬-빌-가-메쉬를 "그의 형제"로 지칭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엔키두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짐메른이 출판한 수메르 텍스트(위, 13쪽)에서도 길가메시는 엔키두의 형제로 나타난다(뒷면, 1단, 17행).

인장 원통에 나타나는 길가메시와 엔키두의 수많은 표현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는 이 두 영웅의 유사성이 놀랍도록 확인되는 것을 발견한다. 둘 다 수염을 기르고 있으며, 가닥이 같은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다. 두 경우 모두 얼굴은 넓고, 머리 옆으로 곱슬머리가 튀어나와 있지만, 때때로 엔키두의 경우에는 이 곱슬머리가 없다. 특히 놀라운 것은 길가메시가 일반적으로 엔키두보다 _조금 더 키가 크다_는 것을 발견하는 것인데, 이는 펜실베이니아

점토판에서 엔키두가 "키가 더 작다"는 진술을 뒷받침한다. 물론 둘 사이에는 몇 가지 구별되는 특징도 있다. 예를 들어, 엔키두는 일반적으로 동물의 발굽으로 표현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엔키두는 보통 들소의 뿔로 묘사되지만, 다시 한번 이 표시는 상당수의 경우에 없다. 발굽과 뿔은 엔키두가 동물과 함께 살았고 동물과 매우 흡사했던 시기를 나타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두 영웅이 거의 똑같이 생긴 원통들이다. 예를 들어 워드 199번에서는 한 인물이 다른 인물의 복제품인 두 인물(하나는 약간 더 키가 크다는 점만 제외하면)이 서로 갈등하고 있다. 워드 박사는 이 표현에 당황하여 "각 길가메시가 다른 길가메시를 찌르는" "환상적인" 장면으로 기록했다. 펜실베이니아 점토판에 비추어 볼 때, 이 장면은 분명히 제6단에서 묘사된 두 영웅 사이의 갈등으로, 우정을 형성하기 위한 전초전이다. 신화의 영역에서도 좋은 싸움만큼 이후의 동맹을 위한 기반이 되는 것은 없다는 인간의 경험이 통용된다. 이 단편은 이 갈등을 길가메시가 패배하고, 그의 상처받은 자존심이 관대한 승자에 의해 달래지는 격렬한 싸움으로 묘사한다. 승자는 패배한 적에게 그가 단지 "헤라클레스"가 되기보다는 더 높은 무언가를 위해 운명지어졌다고 안심시켜 준다. 그는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펜실베이니아 점토판에서 두 영웅이 서로 닮았고, 하나가 다른 하나의 상대라는 묘사에 충실하게, 인장 원통은 그들을 거의 똑같이, 두 형제가 가능한 한 똑같이 묘사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두 인물이 의도되었으며, 대칭을 위해 하나가 반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약간의 구별만 있다. 머리카락을 착용하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얼굴 표정이 약간 다르며, 하나는 길가메시를, 다른 하나는 엔키두를 의도했다다는 것을 분명히 할 만큼만 다르다. 따라서 다른 표본인 173번에서 우리가 길가메시가 그의 상대를 다리로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은 단지 두 영웅 사이의 싸움의 또 다른 측면일 뿐이며, 그중 하나는 엔키두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워드 박사가 추측했듯이 길가메시의 기괴한 반복이 아니다.

펜실베이니아 점토판에서 엔키두를 길가메시의 평행 인물로 묘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 인물의 상호 관계를 고찰하게 한다. 여러 해 전에 길가메시 서사시가 독립적인 기원을 가진 다양한 이야기들이 결합되어 남부 바빌로니아의 _영웅 eponymos_와 다소 인위적인 관련을 맺게 된 복합적인 이야기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엔키두가 원래 기쉬나 길가메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완전히 독립적인 인물일 뿐만 아니라, 후자가 실제로 서사시에서 엔키두의 상대, 즉 엔키두에게 속한 비범한 신체적 힘의 특성을 부여받은 반영으로 묘사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첫째로, 대결에서 길가메시를 이기는 것이 엔키두라는 사실에 의해 나타난다. 그레스만이 제시한 두 영웅의 만남 에피소드에 대한 전체 분석은 수정되어야 한다. 겁에 질려 대결을 경고받는 것은 엔키두가 아니다. 밤중에 여신 이쉬하라가 누워 있는 집에서 나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엔키두를 만나는 것은 길가메시이다. 엔키두는 길가메시의 "길을 막는다". 그는 길가메시가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막고, 둘은 "황소처럼" 서로 공격한다. 그들은 서로 씨름하고, 엔키두는 길가메시를 땅에 쓰러뜨린다. 따라서 엔키두는 그의 신체적 기량의 특성이 나중에 길가메시에게 이전된 진정한 영웅이다.

유사하게, 다음 에피소드인 후와와와의 투쟁에서, 예일 점토판은 이야기의 원형에서 엔키두가 진정한 영웅임을 분명히 한다. 모두가 기쉬에게 그 시도를 만류한다—우루크의 장로들, 엔키두, 그리고 일꾼들까지. "어찌하여 이것을 하려 하느냐?" 그들은 그에게 말한다. "너는 젊고, 네 마음이 너를 사로잡는구나. 네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 사건의 이 부분은 이제 킹이 발견하고 출판한 아시리아 판본의 최신 단편을 통해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다. 장로들은 길가메시에게 말한다:

> "오 길가메시여, 네 힘을 믿지 말라! 네 공격을 믿는 것에 대해 경고를 받으라(?)! 앞서 가는 자가 그의 동료를 구원할 것이요, 선견지명이 있는 자가 그의 친구를 구원할 것이다. 엔키두를 네 앞에 보내라. 그는 삼나무 숲으로 가는 길을 알고, 전투에 능하며 싸움을 보았느니라."

길가메시는 이 경고에 충분히 감명받아 엔키두에게 그의 어머니 닌순을 방문하여 그녀의 조언을 받으러 함께 가자고 제안한다.

기쉬 자신도 망설이며 말리려 했던 엔키두가 후자와 동행하기로 결심한 후에야 우루크의 장로들은 화해하고 기쉬에게 싸움을 격려한다. 둘은 협력하여 후와와를 향해 나아간다. 길가메시 혼자서는 계획을 실행할 수 없다. 이제, 이야기가 이처럼 한 행동에 두 인물을 연관시킬 때, 둘 중 하나는 원래 이야기에 추가된 것이다. 현재의 경우, 기쉬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엔키두, 구체적으로 "길을 잘 아는... 숲 입구까지" 후와와가 사는 곳을 아는 자로 묘사되는 엔키두가 *원래의* 정복자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당연히, 서사시는 이 사실을 가능한 한 많이 숨기려 한다. *ad majorem gloriam* 길가메시. 가장 사랑받는 영웅이 된 자를 전면에 내세우려 한다. 따라서 바빌로니아 판본과 아시리아 판본 모두에서 엔키두는 망설이는 모습으로, 길가메시는 진행하기로 결심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길가메시는 사실 엔키두를 비겁하다고 비난하며 실패가 눈앞에 닥치더라도 진행하겠다고 대담하게 선언한다. 그러나 길가메시가 결과를 두려워하는 오래된 견해의 흔적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길가메시의 어머니가 샤마쉬에게 불평하는 장면에서, 후자가 그녀의 아들의 마음을 후(ㅁ)바바로 가는 먼 길로 이끌었다고 한다.

> "그에게 알려지지 않은 싸움으로, 그는 나아가고, 그에게 알려지지 않은 원정을 그는 떠나는구나."

닌순은 아들이 자신의 의도를 알리고 그녀의 조언을 구했을 때 그 결과를 분명히 두려워한다. 샤마쉬의 대답은 보존되지 않았지만, 예일 점토판에 제시된 기쉬의 호소와 기도에 대한 태양신의 대답처럼, 의심할 여지 없이 안심시키는 성격의 것이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엔키두가 후와와의 진정한 정복자라는 추가적인 표시로서, 우리는 다가오는 싸움이 길가메시가 해석하는 꿈 속에서 엔키두에게 세 번이나 계시되는 것을 발견한다.

꿈을 꾸는 사람이 항상 꿈이 적용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꿈들에서 원래 엔키두에게 할당되었던 주된 역할의 추가적인 흔적을 볼 수 있다.

아시리아 판본에 따르면, 두 영웅이 함께 수행하는 또 다른 위업은 이슈타르의 청혼을 거절한 길가메시에 대한 복수로 아누 신이 보낸 황소를 죽이는 것이다. 황소와의 싸움에 대한 단편적인 묘사에서, 우리는 엔키두가 괴물의 "꼬리를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엔키두가 원래 살해자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가 여신의 얼굴에 시체의 일부를 던져 이슈타르를 모욕하고, 모욕적인 말을 덧붙였다는 진술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이는 이슈타르가 분노하여 길가메시가 황소를 죽였다고 비난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따라서 서사시가 길가메시에게 자리를 마련하고, 후자에게 *주요* 역할을 부여하려는 추가적인 욕망으로 에피소드의 원래 성격을 변경했다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길가메시가 아니라 엔키두가 이슈타르에 대한 모욕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엔키두는 에피소드의 원래 형태에서 유죄 당사자였음에 틀림없으며, 그는 열두 날 후에 굴복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벌을 받는다. 이를 고려하여, 우리는 황소와의 만남이 끝날 때 도입된 작은 노래에서 길가메시가 아니라 엔키두의 이름을 보충할 수 있다.

> "영웅들 중에 뛰어난 자는 누구인가? 사람들 중에 영광스러운 자는 누구인가?
> [엔키두]는 영웅들 중에 뛰어나고, [엔키두]는 사람들 중에 영광스럽도다."

마지막으로, 펜실베이